

120여 학인 스님 구도열기 모아져

제27회 전국승가학인연합대회 10월 29일 화엄사에서 성료

전국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구도열기를 내뿜었다. 전국승가학인연합회(회장 우성, 화엄사 승가대학)는 10월 29일 화엄사 일원에서 '제27회 전국 승가학인연합회 대회(이하 학인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화엄사, 송광사, 증암승가대, 통도사, 동화사, 불국사, 범어사, 범주사, 경주 동국대 등에서 120여 학인스님이 참여했다.

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다. 이번 만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환영의 말을 전했다.

오후 1시부터는 학인스님들의 공부역량을 서로 알아보는 경연 시간이 펼쳐졌다. 염불, 법문, 서도, 역경 등 4가지 종목에 각 대학의 대표자 1명이 참여해 경합을 벌였다. 염불과 법문은 자유주제로, 서도는 화엄경

우의증진·단합 목적 매년 개최 금강경 독송·법고 경연 등 진행 "학인스님 만남의 장으로 발돋움"

현수품 중 한 구절을 화선지에 담아내는 것이고, 역경은 치문경훈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경연은 화엄사의 각황전, 화엄일, 보제루, 범음로 등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연에 이어 대웅전 앞 마당에서는 화엄사 대회의 특징인 참가자 전체의 금강경 독송이 진행됐다. 120여 학인스님들의 합송을 통해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은 화엄사



10월 29일 화엄사에 운집한 학인 스님들이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를 참배한 많은 신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독송에 앞서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현대사회의 경제성장 과 국민소득의 증대라는 장밋빛 환상의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바로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라며 "학인스님들이 초발심으로 수행자의 엄정한 위의를 갖추어 나가기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곡스님은 인사말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일회일비하지보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

하는 큰 대처하는 큰 그릇으로 학인스님들이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사는 오후 4시 각 대학에서 2인씩 참여하는 법고 경연대회와 체육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우성 스님은 "어렵게 진행되는 학인대회가 올 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서 계속 이어져 개최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체 학인들이 참여하는 만남의 축제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개최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소원나무 워크샵'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과 아산면 희망나누리위원회(위원장 강국선)는 10월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아동의 꿈을 키우는 '소원나무 워크샵'을 진행했다.

2015년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의제사업으로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산면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산면희망나누리위원회와 20여 아이들이 모여 아이들의 소원을 듣고 이를 이루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어 나만의 소원나무를 만들고 축구장 관람하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수학학습하기 등 '소원나무 꾸미기 & 선



포식'을 진행했다. 대원 스님은 "아동의 소원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무각사, 스리랑카 카티나 법회

광주지역 거주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위한 카티나 법회가 열렸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는 11월 1일 불교회관에서 카티나 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9월 취임한 마니사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를 비롯해 국내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스님 13명, 근로자 400여 명이 동참했다.

남방불교 전통인 카티나 법회는 음력 6월 보름~9월 보름의 여럿칠 우기(雨期) 안개가 끝난 뒤 대중들이 스님들에게 음식과 가사를 공양하는 의식이다. 행사는 스님들을 법단으로 모시는 의식에 이어 삼귀의, 오계, <자애경>을 팔리어로 합송, 법문 등이 스리랑카 전통불교의식으로 진행됐다.



법회 후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전남대학교 치과 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 치과진료봉사, 광주조은안과 안과 진료봉사, 틈사람봉사회회 한방진료봉사와 광주전남 포교사단의 미용봉사가 등이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마음 대법회로 지역불교 활성화 기대"

순창사암연합회장 청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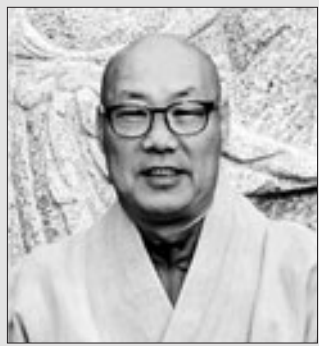
"순창지역은 호남지역에서도 가장 교세가 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시일 내에 획기적인 변화는 어렵지만 지역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전북 순창 사암연합회 회장에 취임한 장덕사 주지 청암 스님은 10월 29일 교계언론과의 만남에서 순창불교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우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지역은 전국적으로도 불교세가 가장 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2만 3000명 규모의 농촌지역으로 이 중 개신교회 75곳, 천주교 성당 1곳, 원불교 교당 2곳, 향교 1곳 등으로 개신교세가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청암 스님은 지난 5월 순창사암연합회장에 내정됐지만 메르스 여파로 장덕사가 있는 장덕마을 출입이 통제돼 활동을 펼치지 못했다.

스님은 고된 끝에 11월 24일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초청해 이웃과 지역, 종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한마음 대법회를 봉행하기로 했다. 한마음



대법회는 황숙주 군수 등 지역기관장들과 이웃 종교지도자, 지역불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법회가 될 예정이다.

"순창지역은 노인인구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이 350가구에 달하는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맞춤형 포교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전문학 강의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순창사암연합회는 2016년도 중점사업으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대법회, 붓다의 힐링명상, 불교문화유적답사, 템플스테이, 순국선열과 한국전쟁 전란희생자 위령제, 산사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 65년 만에 복원

11월 1일 낙성식,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소실 아픔 간직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소실된 전북 완주 안심사 대웅보전이 65년 만에 복원됐다. 완주 안심사(주지 일연)는 11월 1일 안심사 대웅보전 낙성식 및 삼존불 봉축식을 봉행했다.

이날 낙성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무관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일감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백흥암 선원장 영운 스님, 대전 비구니 청림회장 효경 스님 등 스님들과 김대규 완주 부군수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는 안심사 신도들의 육법공양에 이어 테이프 절단, 경과보고, 공포제 단발, 축사, 법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심사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 172㎡ 면적의 2층 중층 팔작지붕 형식으로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의 삼존불과 후불탱화가 조성됐다.

이번에 조성된 삼존불은 해인사 무관 스님의 집전 하에 전통방식으로 조성됐다. 대웅보전 복원은 2009년 착공한 후 건축비 40억원, 단청사업비 12억원 등 총 52억원을 투입해 6년 동안 진행됐다. 이중 대웅보전 내부 단청과 수미단, 삼존불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동참으로 마련됐다.



일연 스님은 "한국전쟁 당시 작전상 아군에 의해 소실된 것을 65년 만에 복원됐다. 이는 많은 이들의 원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장엄한 법당과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내기 위한 발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라며 "자각각타 각행원만의 진리를 바로알고 탐진치 삼독심을 끊어 무명심을 타파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법회 후에는 명상음악가 윤세계 등이 출연하는 안심사 대웅보전 복원기념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한편, 안심사 대웅보전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3일 국군 8사단 88연대 3대대의 작전 중 소각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화사 학부모 위한 정목 스님 초청법회

광주 연화사(주지 명신)는 10월 25일 대웅전에서 '힐링 멘토'로 불리는 정목 스님을 초청해 법회를 개최했다.

연화사와 광주시교우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법회는 '마음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보여요'라는 주제로 진행돼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상처받고 지쳐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화사유치원 학부모를 비롯해 사찰신도, 지역주민 300여 명이 동참했다.

명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사



회 속에서 연꽃과 같은 정목스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평안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무수사 삼존불 점안법회... 11월 4일 개원

곡성 무수사(주지 혜문)는 11월 4일 개원과 함께 삼존불 점안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이낙연 전남지사, 유근기 곡성군수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는 불교의례, 점안의식(집전 해안, 청림), 명선 스님 선무, 음성공양,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원한 무수사는 대지 3000평에 대웅전과 요사채 2동 등이 들어섰다.

혜문스님은 인사말에서 "무수사를 누구나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노인을 위한 봉사, 신앙체험 공간, 영·호남 교류 행사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법회 후 진행된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진국이, 김국환, 인드라스님, 진시몬, 박정식, 진성, 연주가 신유식 등이 참여해 지역주민을 위한 흥겨운 공연을 선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야 얻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선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빙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